

# 아날로그와 공동체 전통 지닌 'XM세대'

## 후진국-선진국 겪은 마지막 세대에 대한 고찰

### 엑스트림세대: X세대와 M세대, 대한민국을 바꾸다

정국진 지음, 공감의장, 1만6500원

“XM세대는 자신이 어느덧 어른 즉 90년대에 그토록 미워했던 기성세대의 나이가 되어 버리면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이데아'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하며 이를 대체로 정치적인 참여 등을 통해 배출하고 해소한다.”

신간 '엑스트림세대: X세대와 M세대 대한민국을 바꾸다'는 1968-1987년 사이에 출생한 X세대와 M세대를 엑스트림(extreme) 세대라고 한데 묶어 명명하여 분석한 책이다.

두 세대는 1988-2002년의 15년간 세계 국가가적기술적 대변혁이 이뤄진 시기말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바탕으로 동지와도 같은 비슷한 정체성을 형성했다.

저자는 X세대와 M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가 해결된 1987년 이후의 대한민국에 개

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Z세대와 알파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그 이전 세대와 함께 아날로그와 후진국 시절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전통을 함께 겪은 이들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긴 세대'로 인식되어 왔을 뿐 앞세대와 뒷세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세대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 저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MZ 담론'은 'XM 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1년 만에 걸친 다양한 XM세대와의 인터뷰와 저자 자신의 경험·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는 XM세대 성향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가진 정체성을 발견하고 브릿지 세대로서의 잠재력을 자각하기를 바라고 있다. **업재만 기자 jmeom@skyedaily.com**

# 간호사·승무원 직군에 여자가 몰리는 이유?

## 32명이 말하는 여성 진로 억압에 대한 이야기

### 직업을 때려치운 여자들

이슬기 서현주 지음, 동아사이, 1만7000원

“교사·간호사가 '여자가 갖기에 좋은 직업'인 이유가 있다. 여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성차별을 덜 받는 직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골단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 딸 아이가 이 험한 세상 속 여자로서 편히 살기를 바라며 권한 직업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욕망과 선택은 어디까지가 그 사람 고유의 것일까? 10대 후반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얼마만큼의 개인적 동기 또는 외부 압력에서 비롯되는 걸일까.

제목부터가 자극적인 책 '직업을 때려치운 여자들'은 여성 젠더의 관점에서 여초직장과 노동의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두 저자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폐기 사태·유보통합 등의 법안 동향 분석과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다뤘다.

책은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여초 직업이라 일컬어지는 교사·간호사·승무원·방송작가 직군에서 왜 여성들이 많이 일하게 됐는지 진로 선택 단계부터 가해져 온 억압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다.

사회·젠더 전문 기자 이슬기 작가와 교사 출신 작가이자 성교육 활동가 서현주가 여성이 일하기 편한 직업을 구했다가 사직서를 낸 여성들의 경로를 연구한 결과다.

책은 교사·간호사·승무원·방송작가 전문적인 직능보다 돌봄과 서비스의 수준에서 다뤄졌다고 평가하면서 32명의 인터뷰이가 여성의 언어로 여성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인물들은 직업에 버리기만한 이유에 대해 뼈아픈 심층 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냈다. **업재만 기자 jmeom@skyedaily.com**



저도의 관문, 빨간색 철제 교량 '저도콰이강의다리'. **촬영·임유이 기자**

# 발 아래 물결 '일렁'... 철교의 낭만

### ✈ 아는 풍경 낯선 여행

## 창원 저도 낮과 밤 색다른 풍경... 유리 바닥 '짜릿' 북한강철교 1939년 개통... 보행로·자전거길 변신

### ⑥ 한국판 콰이강의 다리

“저도 콰이강의 다리에 갑니다.” 창원의 이색 명소 '콰이강의다리'를 방문할 때 여행객은 사뭇 공손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도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돼지 형상의 섬 '저도'이다. 국내에는 저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많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가 가장 유명하지만 창원 저도가 그 아성을 뒤쫓고 있다.

### 빨간색 철제 교량 '저도콰이강의다리'

창원 저도는 남쪽 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비치로드를 대표 경관으로 갖고 있다. 조카배 하나 대지 못할 만큼 가파른 절벽과 철쭉이는 파도 사이를 거니는 일은 저도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산책 경험이다. 저도에 입도하려면 빨간색 철제 교량 '콰이강의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는 의창군 시절인 1987년 구산면 육지부와 섬 저도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됐다. 그러나 2004년 바로 옆으로 더 크고 넓은 신 교량이 설치되면서 차량 통행을 양보하고 보행 전용으로 물러났다. 명칭도 저도연륙교에서 '저도콰이강의다리'로 변경됐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바닥도 콘크리트에서 강화 유리로 교체됐다. 낮에는 투명한 바닥을 통해 13.5m 아래 바다를 감은하수 길을 따라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섬과 육지를 잇는 해상교각에

'저도콰이강의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조금 뜬금없긴 하다. 외관도 비슷한 데가 거의 없다. 누구라도 '저도콰이강의다리'가 태국 콰이강의다리를 닮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저도콰이강의다리는 1980년대 건설 당시 켈리갑배기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상단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하단에 아치를 둔 모습이 날개를 한껏 펼친 갈매기 형상이다.

###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콰이강의다리'

원래 콰이강은 매콩강의 지류로 태국과 미얀마를 가로지르는 테나셀림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그리고 '콰이강의다리'는 태국과 미얀마를 잇는 '버마철도의 한 구간'이다. 총길이 400km에 달하는 버마철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군인과 전쟁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건설했다. 그 최종 목표는 인도네시아 점령이었다. 일제는 철도 건설에 연합군 포로와 징용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 자료에 의하면 전쟁 포로 6만여 명과 태국·인도네시아·미얀마·말레이시아 노동자 20만 명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에서 철도 건설을 강행하다 보니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시기 질병·부상·영양실조·중노동으로 사망한 사람만 11만6000여 명이 이른다. 투입된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면서 버마철도에는 '죽음의 철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때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 데이비드

린 감독의 '콰이강의다리'다.

1987년 태국 내에서 버마철도의 폐선 구간을 복원해 관광 노선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태국 정부는 일본에 복구 비용을 물릴 계획이었다. 남의 돈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이 매력적인 계획은 철도 건설에 끌려갔던 연합군 측 재향군인회의 반대에 직면해 없던 일이 됐다. 그들로서 고통의 장소를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재난 장소를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콰이강의다리'를 포함해 버마철도 일부는 이미 다크투어리즘이라는 명목 아래 관광지가 되었다.

태국 방콕 근교 도시 칸차나부리를 방문하면 전쟁의 상흔이 깃든 역사적 장소를 둘러볼 수 있다. 방콕에서 칸차나부리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 이동이 어렵지 않다.



임유이 기자 lye@skyedaily.com

1939년 개통된 '북한강철교' 태국 콰이강의다리를 닮은 다리는 사실 다른 곳에 있다.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과 양평 양서면을 잇는 '북한강철교'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개통된 철도 교량이다. 원래 이름은 양수철교다. 난간부를 철제로 마감한 것이며 레일의 흔적까지 역력한 콰이강의 다리다.

2008년 중앙선을 복선전철화하면서 철도 교각의 임무를 바로 옆 신 교량이 떠맡게 됐다. 양수철교가 은퇴하면서 양수철교라는 이름도 신 교량이 가져갔다. 구 교량에는 북한강철교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현재 구 교량은 바다에 보도용 나무판을 깔아 보행교로 사용 중이다.

구 교량은 윤길산역에서 북한강을 건너 남한강을 따라가는 남한강자전거길의 일부 구간이다. 그래서 재밌게도 다리 진입로에는 '남한강자전거길' '북한강철교' 두 개의 강 이름이 표기돼 있다.

팔당에서 양평군을 거쳐 여주시까지 이어지는 남한강자전거길은 구 중앙선 노반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레일도 만나고 다리도 건너고 터널도 지난다. 국내에서 이렇게 다채롭고 재밌는 도보 길은 흔하지 않다.

#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황종택 칼럼 신온고지신3

##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治人治世)의 해법

고전에는 삶의 지혜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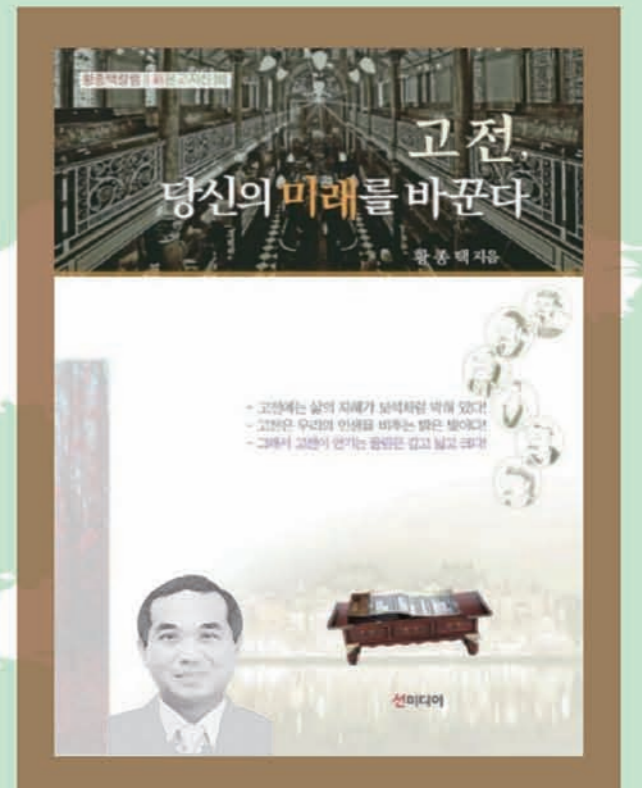
고전은 인생을 비추는 밝은 빛이다!

그래서 고전이 안기는 울림은 깊고 넓고 크다.

“총체적 도덕성 상실의 시대, 고전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들여다 보고 해법을 제시하다!”

고전에는 오랜 역사성과 더불어 세상을 관조함에 심오한 깊이가 있다. 고전은 고금을 관통하는 고귀한 진리이며, 치인치세(治人治世)의 도와 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만상을 오롯이 품고 있다. 고전은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다.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는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인 저자가 날카로운 기자의 시선으로 들여다 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통해 그에 걸맞은 고전의 경구와 지혜를 현 시대인들에게 맞게 해석해 놓은 글 모음이다.



황종택 지음 · 선미디어  
값 14,000원